

11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강원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철암도서관	달 샤베트/ 백희나/스토리보울	그때, 식탁 위에 놓아두었던 빈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달 물을 꺼내 화분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달처럼 환하고 아주아주 커다란 달맞이꽃이 피어났습니다
2	꾸러기어린이도서관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호프 자런 지음, 김은령 옮김. 김영사.	우리 각자는 언제 어디서 더 많이 소비할까 대신 어떻게 덜 소비할 수 있을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와 산업계가 우리를 대신해 이런 질문을 던질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p.231)
3	꿈마루 도서관	착한 소비는 없다/최원형/자연과 생태	우리는 일주일에 미세 플라스틱을 약 5그램 섭취합니다. 신용카드 한 장 무게입니다. 한 달이면 미세 플라스틱을 칫솔 하나 무게인 21그램 정도섭취하는 셈입니다. (p.33)
4	앞짱어린이도서관	오래된 미래/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중앙books	나는 라다크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영위해 온 사회적, 생태학적 균형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그들의 삶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관습화된 개발의 방향을 답습하여 고유의 것들을 해체해 버리기보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기반 위에 새로운 것들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p.257)

11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경기북부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에다움도서관/백정희	검정토끼 / 오세나 글그림/ 달그림	터지고, 풀리고, 대롱 대롱 매달리고, 한가득 쌓이고,
2 와이시티작은도서관/김경진	회색큰다람쥐를 현상수배합니다/ 파픽 제노베시,산드로 나탈리니 글/푸른숲주니어	각종 환경단체들은 외국에서 데려온 동물을 풀어놓고 기르는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요. 단지 그 동물이 나 식물이 귀엽고 예쁘다고 무작정 데려왔을 때, 토종 동식물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 깨닫게 하려는 거지요.
3 그루터기 작은도서관/이병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박병상/이상복스	조금만 부지런하면 냉장고로 충분히 얼음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귀찮다고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를 들여놓는 세상이 되었다. 그것을 위해 도처에 핵발전소가 세워지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한다. 당장 누리는 편의의 대가로 후손들이 누려야 할 세상은 위험해지고 말았다.
4 화전작은도서관/임희정	안녕, 폴/센우 글, 그림/비룡소	내가 이름을 지어줄게. 네 이름은 폴이야. 지구가 뜨거워지면 남극의 한쪽은 얼음이 녹아내리지만 다른 한쪽은 더 추워져서 바다가 얼어붙게 돼. 펭귄들은 바다에서 먹이를 잡아오는데, 그 바다가 얼어붙으면서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가 되어 버린거야. 그래서 이곳으로 오지 못하고 알들은 버려지는 거지.
5 햇빛21작은도서관/윤영연	소원/박혜선 글, 이수연 그림/키즈엠	내 소원은, 내 소원은 흔적도없이 사라지는 거야.
6 호수공원작은도서관/김연희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호프 자런/김영사	우리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를 구하도록 해주는 마법 같은 기술은 없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21세기의 궁극적인 실험이 될 것이다. 덜 소비하고 더 많이 나누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던져진 가장 커다란 과제다.
7 모당공원작은도서관/김희정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글, 김은령 옮김/에코리브르	인간이 아무리 안 그런 척 행동해도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8 고양작은도서관/심은경	전지적 지구 시점/정원/마음의숲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시장에 열 번 갔을 때 다섯 번은 비닐을 챙겨가고 다섯 번은 그러지 못했다 해도, 당신은 친환경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뭐라도 하려는 마음은 언제나 아름답다.

11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대구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개인회원/김경희	바본가/김형준 그림책/ 월천상회	바보! 비가 어디 있어. 내리는 게 비라니까.
2	책마실도서관	무해한 하루를 시작하는 너에게 / 신지혜 (지은이) /보틀프레스	침체된 나날에서 그린 라이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 편하고 익숙해서 누러온 것이 가진 함정,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등 차곡 차곡 쌓아온 친환경 경험들을 기록하고 '에코라이프 매뉴얼'로 활용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겨있어요
3	해봄도서관	우리집이 물에 잠겼어요/ 지은이 박혜나 /그림 김서윤 /출판사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	우리가 쓰는 에어컨과 냉장고, 우리가 타는 자동차와 비행기, 우리가 먹는 고기, 우리가 입는 옷 등은 탄소를 발생시켜 탄소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무게로 발생했는지를 무게로 표시한 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
4	그나라어린이도서관	우리 곧 사라져요 /이예숙 글,그림 / 노란상상	우리는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쓰고 버렸을까요? 먹고 버린 과자 봉지, 고장 나 쓸모없는 장난감, 배달 음식과 함께 온 일회용 포장 용기 등등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함께였음을 떠올릴 수 있어요. 편리함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았던 지난날의 우리는 사라져 가는 바다 동물들의 간절함 외침을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 곧 사라져요》를 통해 멸종 위기 바다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출판사 보도자료 중에서-

11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사무국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채은아	모두를 위한 초록별 에너지 전환 이야기/글 상드린 뒤마 로이, 그림 셸린마니에, 옮김 김현정/놀궁리	지구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들은 모두 에너지가 필요하지요.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별을 더 푸르르고,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모두를 위한 초록별 에너지 혁명이 될거예요!
2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김현실	식물 심고 그림책 읽으며 아이들과 열두 달 이태용/세로	식물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힘이 있어요. 사람이 해 줄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능력이지요. 우리 안에는 '식물 친화 유전자'가 있거든요.

11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서울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꿈틀어린이도서관/소영	어둠을 치우는 사람들/ 박보람 / 노란상상	그보다 더 좋은 건 우리가 지나간 자리, 그 자리 마다 새로운 아침 별이 내리쬐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불쾌했던 어둠은 우리가 모두 가져갑니다.
2 생글작은도서관 / 주영자	지구끝의 온실/김초엽/ 자이언트북스	작가의 말 : 우리가 이미 깊이 개입해버린, 되돌릴 수없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지구. 도저히 사랑할 수없는 세계를 마침내 재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3 성산글마루작은도서관 /조아라	눈보라/강경수/창비	빙하가 녹는 북극에서 북극곰은 어떻게 살아 남아야 할까요?
4 작은도서관 웃는책 /김자영	숲으로/호시노 미치오 글, 사진 출판사 논장	숲을 빠져나와, 다시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니 밝은 해에 눈이 시립니다. 중간에 몇 번, 다시 고래와 만났습니다. 나는 아득한 옛날의 인디언이 된 기분으로 고래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5 흥부네그림책도서관 / 김진희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 호프 자런 지음, 김은령 옮김 /김영사	덜 소비하고 더 많이 나누라
6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와글와글작은도서관(천재만)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생각 2006, 박경화,복센스	인간때문에 벌어지는 여러가지 환경문제들을 살펴보고 대안을 고민해본다. 콩고 에서 황금알이 되어버린 콜탄에서 채취가능한 탄탈륨과 희토류 원소들.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전쟁을 하는 콩고.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자원을 수입해 핸드폰을 만드는 대기업들. 소비하는 세계의 사람들 이야기 그밖에 20가지 이야기들.
7 와글와글작은도서관 / 진재연	기후에 관한 새로운 시선 저자 : 엠마 출판사 : 우리나라비	추천글 : 올해마다 폭염 빈도가 많아지고 이상 기온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3월에 수도권에서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4월 중순 한낮기온이 25도를 넘어섰죠. 올 여름은 어떨지 정말 걱정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사망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생명권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에 지적으로 대항하고, 우리의 대안을 찾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해주는 책. 그림도 재미있어요!
8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진수정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유다정 /와이즈만 books	실제 바닷속 생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바다까지 흘러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가 15만톤이 넘는데 그 중 절반 정도 밖에 수거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쓰레기들은 바닷속 생물들을 죽이기도 하지만 돌고 돌아 우리 밥상에 오르기도 하지요.

11월 작은도서관 무슨책읽어?

충청지부

소속 / 이름		책제목 / 저자 / 출판사	책속 한 문장 or 책을 읽고서
1	범지기10단지푸른작은도서관/오유미	바나나가 정말 없어진다고? 김은의 글/글레몽 그림/풀과바람	바나나는 왜 씨가 없을까?? 바나나는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은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돈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 때로는 동물과 식물도 돈의 가치에 의해 마음대로 하기도 한다. 바나나로 돈을 벌기 위해 상품 가치가 높은 한 종류의 바나나만을 재배하고 이는 병에 취약하여 멸종의 위기를 맞게 된다. 바나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생물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알 수 있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에서 생존하는 모든 종의 다양성, 이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또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대해서도 기후 위기와 함께 생각해 봐야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2	다울책사랑방 작은도서관/김은정	자연이 우리에게 손짓해 데보라 언더우드/다산기획	예전에 자연과 우리는 '하나였어' 라고 나지막하게 속삭이며 시작됩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산,강, 동물, 식물 같은 자연의 모든 것들과 멀어져가는데요 코로나19로 안전한 실내에만 있어야 하는 현재의 시점에 자연은 더 멀어졌죠 2021 칼데콧아너상 수상작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데보라 언더우드가 글을 쓰고, 신디 데비가 그린 [자연이 우리에게 손짓해]는 우리들의 이런 현실을 조용히 되돌아 보게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먹는 밥도, 빵도, 과일도, 입고 있는 옷도 모두 자연에서 왔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책이랍니다
3	초롱이네도서관/오혜자	제목 : 누가 누구를 먹나 지은이 : 알렉산드라 미지엘린스카, 다니엘 미지엘린스키 지음 출판사 : 보림	먹고 먹히는 생태계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그림책으로 분류하기에는 매우, 많이 아름답습니다. 먹고 먹히는 생명의 관계를 훌륭한 디자인으로 표현하여 묘한 감동을 일으킵니다. 나를 있게 한, 내가 먹은 생명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